

# Today's Chart

2022-07-26

[Economist] 박상현 (2122-9196) [shpark@hi-ib.com](mailto:shpark@hi-ib.com), 류진이 (2122-9210) [jinlee@hi-ib.com](mailto:jinlee@hi-ib.com)

## 2Q 국내 GDP, 추가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줘

그림1. 지출 항목별 GDP 성장기여도: 강한 소비사이클이 2분기 GDP 성장을 서프라이즈를 견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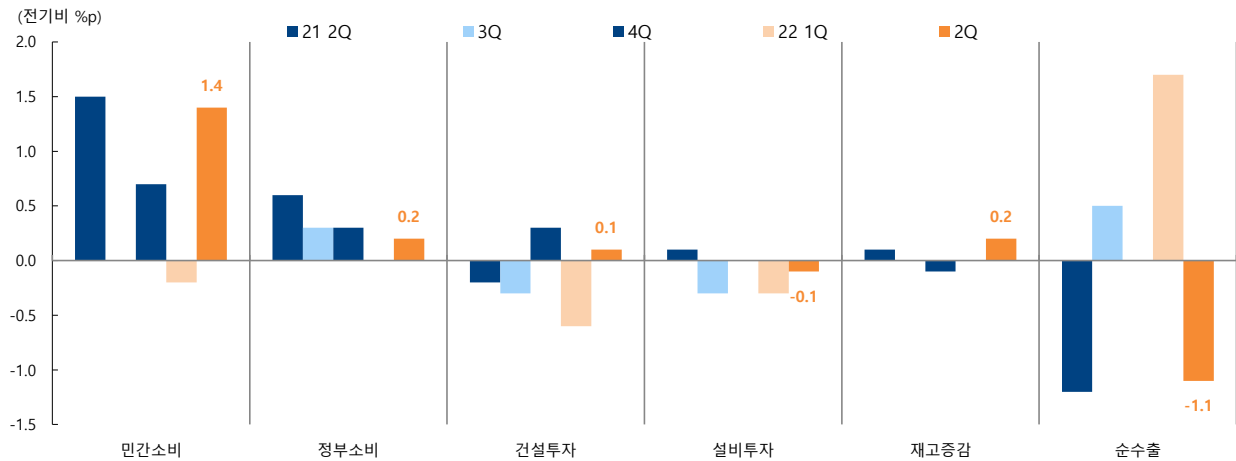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2분기 소비호조로 민간 소비액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상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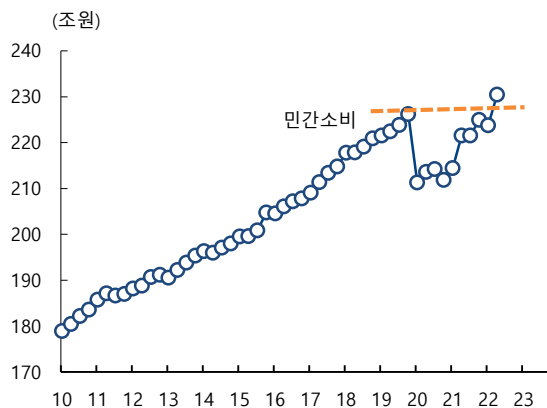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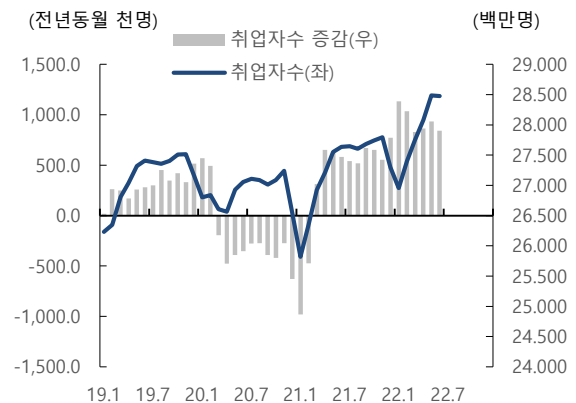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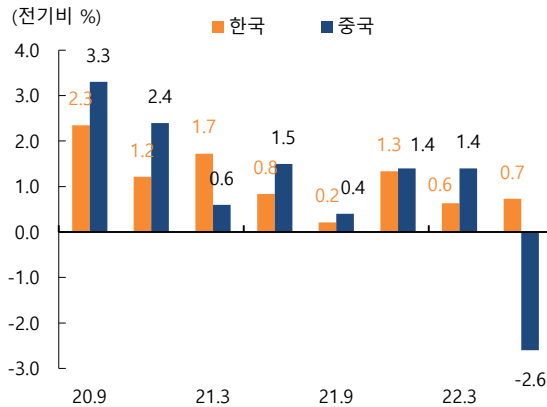


그림3. 양호한 고용시장도 소비 호조에 기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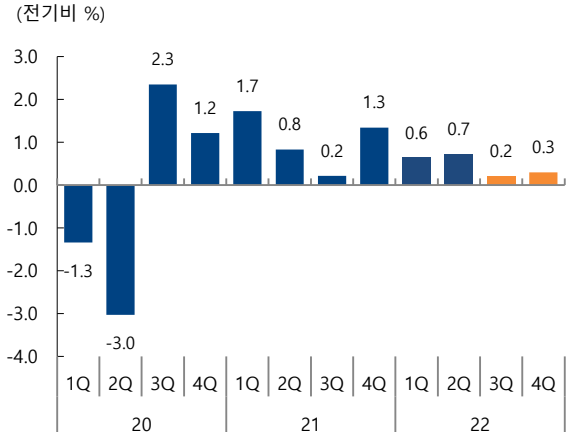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

그림4. 한국과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: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경기 모멘텀은 하반기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

그림5. 하이투자증권 하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



## ■ 대외 악재도 국내 보복 소비사이클을 맞지 못함

국내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0.7%

-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전기비 0.7%라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함. 고유가,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중국 경기 불확실성 악재 속에서도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GDP 성장률 전기비 0.6%를 상회했다는 점은 고무적임
- 2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의 주된 동력은 강한 소비사이클였음. 소비심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강한 보복 소비사이클과 더불어 안정적 고용시장 흐름이 강한 소비 반등으로 이어짐
-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더라도 주요 항목의 성장기여도가 대부분 마이너스(-) 성장기여도를 기록했지만 최종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.6%p로 1분기 성장기여도 -0.2%p보다 큰 폭으로 개선됨. 산업별 성장기여도를 보더라도 소비 호조에 힘입어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전기비 1.0%를 기록, 제조업 부문의 부진(성장기여도 -0.3%p)을 상쇄시켜줌

하반기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올해 GDP 성장률은 2% 중반은 달성할 전망이다

-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 국내 경기의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임. 보복소비 모멘텀 약화, 고금리 부담 및 자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분기와 같은 강한 소비 사이클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와 순수출의 경우에도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경기 모멘텀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뚜렷한 반등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음
- 다만, 국내 고용시장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경기사이클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- 상반기 GDP 성장률이 2.9%임을 고려하면 올해 GDP 성장률은 2.5% 수준 혹은 이를 상회할 공산이 높아짐. 당사의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2.7% 수준으로 전망함. 참고로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전기비 0.2%, 0.3%로 예상함. 물론, 러시아발 에너지 리스크가 잠재해 있음이 국내 GDP 성장률 추가 하향 요인이지만 동 리스크의 경우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임

## ■ 2분기 GDP 성장률은 국내 정책금리 추가 인상에 힘을 실어줘

연말까지 국내 정책금리 50bp 추가 금리인상 예상

- 2분기 GDP 성장률은 무엇보다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됨. 7월 빅스텝 이후 추가 금리인상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던 통화당국 입장에서 성장률 호조로 금리인상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됨. 당분간 성장보다는 물가에 초점을 맞춘 금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임
- 당사는 오는 8월 금통위에서 25bp 추가 금리인상과 더불어 10월 혹은 11월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(25bp)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. 더욱이 부진이 예상되는 3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양호할 경우에는 4분기중 한 차례가 아닌 2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판단임

### 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